

# 오월, 광주에서 안부 전합니다

오월 엽서에 사연 적어 우체통 넣으면 전국·해외 발송  
31일까지 '오월안부 프로젝트'  
6월30일까지 '부치지 못한 안부들' 전시도



광주극장에 마련된 '오월 안부 프로젝트'의 엽서 쓰기 코너.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라는 글귀와 함께 작은 엽서에 담긴 건 1980년 '오월 광주'를 목록이 지켜본 존재들이다. 도청 앞 회화나무,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품고 있는 금남로, 오월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과 현판, 전일빌딩 등.

지난 2017년 시작된 '오월 안부 프로젝트'는 광주 곳곳에 비치된 엽서에 글을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발송해주는 기획으로 '당신의 오월과 오월의 그날'을 이어준다. 많은 이들이 광주의 이야기를 담아 전국으로 엽서를 보냈고, 오랫동안 있고 있던 이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안부를 남겼다. 자신에게 엽서를 띄운 이들도 있었다.

오월안부 프로젝트가 올해도 시작했다. 5·18민중항쟁 39주년기념행사위원회 시민공모 사업에 선정돼 기획자인 김지현(35)씨를 중심으로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일러스트 작가 윤연우, 사진작가 김향득씨가 참여하고 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민한 건 엽서에 새길 '광주 상징 이미지'를 찾는 작업이었다.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고 인터뷰하며 첫째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와 전남도청 정문의 출입문과 현판,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이미지로 확정,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윤연우 작가는 도청과 회화나무, 광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품에 담아 작은 검은색을 그려 넣었고, 모

든 엽서에는 '검은색'이 등장한다.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등 글자는 파주 활판공방에서 직접 활자를 골라 찍어냈다.

지난해에는 80년 오월 쓰러진 광주시민을 기억하는 금남로 '수창초등학교 앞 육교' (지금은 '민주평화대행진'의 출발점)와 도청으로 향하던 이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금남로'를 소재로 작업한 엽서를 추가했다.

올해는 전일빌딩과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을 엽서에 담았다. 올해 5월은 공사중이라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어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오월을 기억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정하고 안내 글귀를 실었다.

'80년 5월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곳, 상무관은 그날의 분노와 통곡을 기억합니다. 분향하러 모인 시민들이 광장을 가로질러 끝없이 늘어섰던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민주광장과 상무관을 잇는 길을 널 2019년 다시 만날 오월의 그곳을 기다립니다.' (상무관)

'금남로 1가 1번지.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의 시작점은 전일빌딩이 서 있습니다. 건물 외벽과 내부에 수많은 총탄 흔적이 새겨진 이곳은 오월의 진실을 마주하는 공간이자 시간의 증인입니다. 내년 시민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전일빌딩)

'오월 안부 프로젝트'는 세 가지 기획으로 진행된다. '오월, 엽서 쓰는 낮과 밤'은 광주 곳곳에서 진

행되는 엽서 쓰기다. 광주극장, 양림살롱 여행자라운지, 5·18기념재단, 신시와, 지음책방, 마을카페 씨쪽씨쪽 등 17개 공간에서 엽서를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5·6월 두차례에 걸쳐 편지를 배달해 준다. 올해는 해외에도 엽서를 보내줄 예정이다.

'찾아가는 오월엽서'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엽서 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프로젝트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답사나 캠프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역사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교 공유 공간 등에 엽서를 비치하고 엽서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신중학교, 봉산중학교, 선운중학교, 성덕고등학교, 조대여자중학교, 완도고등학교 등이 참여했다.

'오월의 문장들'은 동네 책방과 결합해 5·18 관련 문장을 전시하는 기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양림동 책방 '러브앤프리'와 협력해 한강의 소설 '소년의 온다' 중 다양한 시선이 담긴 문장을 선정·전시하고 있다.

한편 오월 안부프로젝트 팀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아시아문화원이 공동기획한 전시 '전남도청 전'에 엽서를 비치하고 지금까지 쓴 엽서를 만날 수 있는 '부치지 못한 안부들'이라는 작은 전시도 옛 전남도청 2층 별관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엽서 쓰기 프로젝트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10-5318-0367. /김미은 기자 mekim@

## 서양화가 우제길 화백 문신미술상 본상 수상

27일 창원서 시상식... 초대전도



서양화가 우제길 화백이 문신미술상 본상을 수상했다.

경남 창원시는 제18회 문신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우제길 작가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문신미술상 심사위원회 위원 7명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 후보 6명 중 우 작가를 본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다음 해 개인 초대전 개최 특전을 부여한다.

문신미술상은 창원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1923~1995)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려고 2002년에 제정됐다.

우 작가는 1970년대 초 추상작업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판화, 콜라주 작업 등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예술을 향한 열정과 도전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트레이드마크인 '빛' 작업을 통해 '빛의 화가'로 불리는 우 작가는 확고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으며 색막대, 콘크리트, 환경 조각과 판화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작업으로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문신청년작가상은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대상을 수상 경력이 있는 도예가 박재철 작가가 받았다.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신미술관 기획전 참가 기회를 준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5월, 평화의 꽃길'

공공미술프로젝트, 7월31일까지 이강하 미술관



지난 3월 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시민과 작가들이 자유와 평화의 염원을 담아 진행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다.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1980년 당시 조선대 1학년으로 5·18시민군에 참여했던 고(故)이강하 화백작품 속 '오방색 비단길'을 2019년에 다시 재해해 본 행사다.

3개월 동안 계속된 이번 기획에는 오월어머니회, 월산동 달할매, 남구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어린이들, 학강초등학교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단체와 기관, 양림동 주민 등 시민 500명과 화가 16

명이 참여했다.

이강하미술관이 결과물을 모아 5월 특별 전시 '공공미술프로젝트-5월, 평화의 꽃길'을 11일부터 7월31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작가들은 이 화백의 대표작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마음을 백두산 천지와 무지개 너머 무등산 이미지로 표현한 '하! 천지(무등에서 백두까지)'를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이 화백의 원 작품을 현재 서울 교보문고에 걸려 있어 미술관측은 작품 이미지를 16개로 나눠 각 작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참여작가는 김명우, 노여운, 노은영, 류금상, 서영기, 서법현, 서영실, 장승호, 엄기준, 윤준영, 양나희, 이조흠, 이재호, 이인성, 박인선, 최요안 등 16명이다. 시민들이 제작한 작품은 이 화백의 대표 이미지인 '비단길'의 단정 무늬 도안을 활용해 각자의 바람을 담았다.

개막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열리며 이강하 작가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이승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1번 '이강하리듬-조월'(연주 첼리스트 박효은)이 연주될 예정이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특허공법**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재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